遺族八十餘人號哭으로 炭坑附近修羅場化

埋沒鑛夫는全部死亡으로判明

유족과경관은계속구조작업중 大同炭坑崩壞詳報

高麗共産黨員

경성서회단에러락할 사명을띄고입경잠입하야 市內各署秘密活動

『女性講演을 男性은할수업서』

영덕녀성친목회주최를 무리한경찰이금지를해 禁止常習인盈德警察

…영덕녀성친목회(盈德女性…)최로지난이십륙일하오 영덕청년회관 운동장에서 음악강연회(音樂講演會)를 열엇는바 정각전 부터 관객은 무려 천명에 … 동녀성친목회 간부 삼인과 연데를당국으로통식하고 … 군의 각성하라는 데와 … 영덕녀성 들 … 이란연데는 강연금지 … 리유는 녀성강연에 남자는 … 리유로 불허되 … 사(崔永安女史)의 … 연데는 불행이 병긔 … 단치못하게되어 일반 … 청중에게 만흔유감을 … 바청중을 위안(慰安)코저 음악 수십여종으로 순서를 마치고 동 악사들에게대한다과회(茶菓會)와 간담회(懇談會)까지잇슨후폐회 하엿다더라(영덕)

昌德宮兩殿下 제네바着御期

佛陀의發祥地 豪雨로溺死千餘

저수디가무허저서창회일어 印度地方의洪水亂

浸水로全滅狀態

인도면화재배디가전부침수피해 【棉花市場에威脅不少】 世界重要棉産地

崔氏家搜索 城津署緊張

사건은중대하다고

三人召喚調査

寧邊産業組合 工女盟罷問題

旱災쓰레水災 水災쓰레虫災

彌月旱災로 迎日은凶年已判

벌서민심소동이여간아나

영일(迎日)디방이 크게가물어 … 먹는물까지 못하고 … 생활에막대한 불안을 늦기게된 … 십륙만군 … 로동요 되엇다 함은그 … 얏거니와 삼사개월동안 … 다섭히 일어난각처의 기우제(祈雨祭)은 … 지 각색의소동이잇섯 … 은의연 계속되는중조 … 미에 억지로 심어둔것 … 약에모조리 말러다버 … 망이업는 참혹한형편 … 이것으로 관뎡되엇는 … 농촌에서는 무서운 … 이어 생기는바설상 … 전염병(傳染病)까지 … (포항)

求禮에도虫災

전남구례군(全南求禮)에는한발로인하야 무수한 곤난을당하다가 늦게야 감우(甘雨)를맛나져 우이앙이 끗나자 설상 가상으로 멸오가창궐하야 일반은 우려중이라고

筏橋에도虫災

전남별교(全南筏橋)부근에는연일호리는 장마로말미암아 부진자(浮塵子)가발생하야농작물의피해가 막심함으로 부진자구축에 전력하는중이라 고(별교)

永川旱災莫甚

영천(永川)디방은금년봄부터감우가 부족하야 약삼개월동안이 … 칠월초순경에겨우 … 와서 인심은다소안심 … 스나 모심은이후로 또 … 하야권에우량부족으로 … 못한것이 일활이며 … 금번감음에는 … 논이더러서 금년은 … 년이라하야 … 불안하다고(영천)

泗川에도虫災

경남사천(慶南泗川)은 두달동안 계속하는비로막대한수해를 엇는데 요사히와서는 해충이생기어 멸구가 발생하야 농촌민이 수업시 흥흥하다 고

行商溺死

전남별교(全南筏橋) 압나룸에는지난이십삼일오전구시경에엿장사(飴商)하는전남구례출생인 박중구(朴仲九)(八○)이라는 사람이목욕 하다가 빠저죽은것을 부근사람이 발견한바당디경찰관주재소순사의립회로시테는곳검서본면사무소에 인도하엿다 고(별교)

發狂한騎兵中尉 三人殺傷後自殺

찻던칼로세사람을죽이고 말을타고가서자긔도자살 【活寫가튼發狂悲劇】

일본천엽현진뎐소(千葉縣津田沼) 긔병(騎兵)십사련대 긔병중위뎐촌총적(田村總積)(三○)은이십팔일오전열시오십분에동뎐구구뎐(久久田)긔병데위뎐촌리칠(田村理七)씨의집에가서주인도업는사이에주인의안해춘강(春江)(二二)과무간에서 싸호다가 패검(佩劍)을쌔어 머리와 오른편어개를세번이나나리처서 당장에 긔절케하고 하녀(下女) 긴(キン)(一八)을뒷문으로 쫏처가 즉사케한후 문압헤매어노흔말을집어타고 그곳에서 약삼뎡(町)가량이나되는 습지야륙군위수 병원부군의 중촌신웅(習志野陸軍衛戍病院附軍醫中村信雄)의 집에가서 그의처 야에(ヤエ)(二九)를또한칼로 찔으고 그대로헌병대와 경관대의계엄하는 것을돌파하고 선교뎡(船橋町) 부근의 경성뎐차(京城電車)길에서 할복자살을하얏는데 원인은 됴사중이나 매독성(梅毒性)으로 생긴일시뎍발광인듯하다 더라(진뎐소뎐보)

男便과싸호고 鐵道自殺코저

지난이십이일밤열두시경에신의주역(新義州驛)부근에서나이이십세쯤 되어보이는 쏫가튼젊은녀자가 긔차선로에서 배회하는것을본 부근사람이 경관에게말하야 순사가 경찰서로다리고가서 됴사한결과 의주군광성면마뎐동(義州郡光城面麻田洞) 고대호(高大浩)의안해조씨(趙氏)(二○)로 그는 자긔남편과 …

… 사소한일로 싸운끄테 자살할목적으로 집사람들이잠든틈을타서 집을나와 그와가티선로에 뛰어 긔차오기를 기다려 배회한것이라는데 경찰서에서는 즉시남편을불러 설유한후 인도하얏다더라(양시)

浮塵子! 忠南에蔓延

가물고더워서

충청남도부여서천보령청양(扶餘舒川保寧靑陽)의각군에는요사이부진자(浮塵子)가발생하얏는데괴온(氣溫)이놉고일긔가가무는까닭에점점더만연(蔓延)하는현상임으로방금구제(驅除)에로력하는중이라더라

漢學先生自殺

원인은병중생활고로

시내 화동(花洞)구십륙번디한학교사김병화(漢學敎師金炳華)(三五)는이십칠일오후열한시경에아모말도업시 자긔집을 나간채로 행위가 불명이던바이십팔일오전일곱시십오분에삼청동(三清洞) 일번디의산속에서목을매어 죽은것을 지나가던사람이발견하고 즉시종로서(鐘路署)에 계출하야 검사한후에 시테는그안해윤씨(尹氏)(三二)에게인도하얏는데 원인은 작년십일월경부터 병에걸려서 생활고에싸진것을비관하야그와가티자살한것이라더라

人夫속여傳票僞造 罪는人夫에돌려

◇감독이사괴해먹고서◇ 問題만흔大正水組의失態

평북룡천군(平北龍川郡)에잇는 문데만키로 이름이놉흔 대정수리조합(大正水利組合)에서는요새문데가 또생기엇는데 이제그자세한내용을 묘사하야 보건대동조합 데이공구(第二工區)에서 공사감독으로잇는 송촌모(松村某)라는 일인이 인부 손영빈(孫永彬)을 꾀어 인부뎐표(人夫傳票)를 위조하야 먹다가 발각된것인데 이에대하야 감독송촌은 몰이어자긔는 아니한듯이 인부손영빈을 교묘한수단으로달래어 허무한문데를 라렬한시말서(始末書)를바다 가지고는 잘되엇다 는듯이 권긔인부를뒤협공갈하며 심하야는동구기사 가등(加藤)과 협력하여 구타까지 하얏다 는데 이에대하야 권긔인부의 말을들으면 인부뎐표를 꾸민것은 권긔감독이 청부공사(請負工事)가잇슬때에쓸것이라고한것이요 또지금 조합에서준자뎐거(自轉車)가상햇스니 그것을 우리돈으로 고칠필요가 업스니 인부뎐표를 하로한사오매식늘여두라고 하기에 그리하엿노라고하매 이제 그일인감독의 사행을보면 권긔인부는본래십장(什長)이던것을지금에와서는 감독송촌의족하 열는 구세된 어린아이가튼것을 십장으로 채용하고서는 권긔손영빈은일종식으로 십장이라고 명칭하고내용으로는 인부로 채용한일도잇다는데 이일은 동조합평의원, 허의원(許議員)들이알게되면문데가 더욱커지리라더라(양시)

主婦를鐵絲로結縛

닭여섯마리를빼앗고달아나 좀된時局標榜强盜

지난이십칠일 오전두시경에 황해도평산군마산면 가동리(黃海道平山郡馬山面嘉洞里) 전과삼범(前科三犯) 김경춘(金景春)(三○)은 동군림원면와산리(同郡林原面臥山里)김긔백(金基伯)(三六)의집에들어가서 자긔는 ○○단이라 자칭하고 권긔김긔백의처김화실(金華實)(三二)을철사(鐵絲)로 결박하여 노흔후 소리를치면 죽인다고협박한후 뜰안에잇는 닭(鷄)여섯마리를 강탈하여가지고 평양으로 들어와서 부내대동문근처에서 이닭을 팔어먹으라다가 평양서원 에게 톄포되어 방금엄중한 취됴를받는중이라더라(평양)

理事의醜行으로 女工動搖

리사가녀공과간통 織貧織造組合紛糾

지난 이십일일 평북녕변군 내 렬옹직조조합(平北寧邊郡織造組合)에서는녀공(女工)들이단결하야 가지고가리 공녀로 잇는 허희숙(許希淑)(二三)과리사명정식(理事明庭植)(三○)이란자와불의한 관계를매젓다 하야우리공장내에 부정분자를 두워둔다는것은 오히려 우리까지도더러운말을듯겟다 는리유로축출을시키는동자못 소동을 일으켜조합공긔는 일시어즈 러웟는데이제탐문한바에 의하면 권긔허희숙이란 녀자는 평북귀성(平北龜城)…의안해로서 부부간 사이가조치못하야 남편도모르게 녕변으로와서 권긔렬옹직조조합의녀공으로 잇든중 … 사오일에자긔의남편되는 … 가다리러왓스나종시가티가지안음으로드듸어부부간에리혼문데까지생기게되엇다는바 … 고잇던리사 명정식이란자는 이를조흔긔회로 생각하고 허희숙 …

老人廳財産問題로 貴族富豪間爭訟

력사가잇는일의소송으로 내용이여간복잡지안타고 久遠한事實珍貴한訴訟

안주로인청(安州老人廳)의재산문데로 최근경성(京城)에 잇는 귀족과 안주부호의사이에 진긔한소송문데가 일어나게되엇는데 그내용은 과거오륙십년전으로부터 발단이되어 지금에소송문케까지 일어나게된 관계로여간복잡할뿐만아니라 귀족의집안과 큰부호들사이의 일임으로 세상에서 알기는실로 어려운문케인만큼 그내용을 조사한대로 대략 발표하건대 구한국당시에 안주 리철규(李徹奎)씨가 안주성주(安州城主)로 부임하야 십이년동안을 행정하고 잇슬당시에 문하에 자조출입하던 엇던로인한사람이 오래동안 출입이업슴으로 권긔리철규는 엇던아젼에게 그연유를물엇더니 그의대답이 그로인은본래빈한하야 조석을일상굶던중 일일긔가 몹시치워서 얼어죽엇다고하엿는바 이말을들은 리성주는 크게늣긴바잇서서 공긔조코정한곳에 로인청(老人廳)을 굉장하게지은후빈한한로인들을모아여년을마치게하던중리철규씨는내직으로 승차하야 서울로올라간후그의사촌동생인리회필(李會必)씨가비장으로안주에내려와서 권긔로인청에리철규씨의 비문을세우고 약간의토디를부처서 춘추로제사를 지내엇는데 리회필씨는 아들이업고 다만슬하에금옥(金玉)이라는어린딸자식하나밧게 업섯슴으로 그딸을 남복을시켜 가지고제사를지내엇다고한다

夫婦相別로서 問題는이때부터

리회필씨는 그의안해와 엇더케 서로뜻이 맛지아니하야 각각헤어지게되엇는데 당시로 인청의 문권는 그부인이 가지고개가하여버리엇스며 리회필씨는 서울로올라가 사망하엿는데 개가한 그의전부인은 당시갓가히 출입하던 안주부호김인오(金仁梧)씨와 홍선도씨에게 로인청문권을 맛겨관리하엿다가 후일 리씨집자손이 차즈면 돌오인도해주라고 하엿슴으로 그후부터 안주로인청을 권긔김홍량씨가 관리하여왓는데 대정 십년도에 이르러로인청재산소유자가미상하니 차라리 그재산을공립보통학교에 부치고저 당국에서게획하는것을알은 김홍량씨는 경성 … 리세원(李世元)씨에게 그재산 소유권을 … 엿던바 그회답에 그것은 … 리자가 잇는데 … 안주에잇는 리회필씨의 딸금옥의 남편홍문경(洪文敬)에게양도하라고하엿슴으로 보통학교당국에서도 엇지할수업섯는데 김홍량씨는 … 그소유권을 금옥과 그의남편에게 양도치 안흘뿐만아니라 …

數百農民格鬪

한명은생명이위태하다고

전북익산군 함열면 미륵리(全北益山郡咸悅面彌勒里) 정창순(鄭昌順) 정종옥(鄭宗玉) 최성실은동군동면와리(瓦里)장태옥(張泰玉) 구운여(具雲汝) … 를 데리로 하야 고소를 데긔한다는데 그사실인즉 그전부터동리마다두레회를 … 가 잇서두동리에서피차간 약간알력이 잇섯든바 지난이십일일에는두동리두레군이백여명이 그동리압 큰들에서 『김』을매다가 … 에격투가일어나중경상자를내엇스며 권긔고소인 정창순정종옥최성실은더욱이중상을당하야군산(群山) … 병원에입원치료중이라하며 정창순은 갈비대가꺽어젓다더라(리리)

蓮芳小作組合 大會開催

八月十二日에

황해도송화군련방면(松禾郡蓮芳面) 사음 리정선(李鼎善)부자의 가혹한중간착취에 반항하기위하야 련방면소작조합(小作組合)이창립되엇다함은이미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창립된후에 모든소작인과 그밧게일반인민들은 극도로의긔가 긴장되어 조합원과 위원(委員)이증가한다하며 권긔사음리모가 이사실을 부인하려다가 몰이어일반에게 여디업시공박을 당한사실이 잇고 오는팔월 십이일에는수교청년회관(水橋靑年會館)에서소작인조합대회(小作人組合大會)를 개최하야 여러더으로진행하리라하며증가된위원씨명은알에와갓더라

金膺坤 張元寶 白樂善 金鳳善

熙川署巡査 良民을亂打重傷

피해자는생명이위독 진단을내어고소데긔

평북희천군 동창면석포동(平北熙川郡東倉面石浦洞)에잇는 최승운(崔承運)(四三)이라는사람은 동군장동면 주재소(同郡長洞面駐在所)에근무하는김영준(金永俊)과 그의친족인 김석건(金錫乾)김석희(金錫熙)등 세사람에게몹시어더맛고 중상되어 생명이위독하다는데 그내용을 들으면 권긔가해자김석건의 토디를 피해자가 소작하던바 소작료를 추수의 절반식가르고도화목(火木)까지 담당하라함으로 최승운은소작권을 내어노앗던바 이것을 평소에감정을품어오던 권긔김석건은 지나간 십칠일에엇던주막에서 최승운이가 술을먹고 잇는것을보고 친족 김영준와동생 김석범을 다리고가서 공연한트집으로 그와가티 란타하엿다는데 피해자는 희천서에진단을 … 고소를하고저 하엿스나 그곳의사는 절대로진단을 내어주지 안흠으로 안주에와서 진단을내어검사국에데소하리라 더라(안주)

道高面窃盜

피해액수천여원

충남아산군 도고면덕암리(忠南牙山郡道高面德岩里) 리광호(李光鎬)(三五)는오래전부터 사긔와절도의 상습자로 가장장한인 바 지난이십륙일 오후십이시경에 거의집에잇는것을 소관경찰주재소원에게 톄포되어 엄중한취됴가잇슨후 수일후에는 송국하리라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금년정월팔일에 텬안군직산면 상덕리(天安郡稷山面上德里)자긔처가에가서 토디판매한 일천원호서은행(湖西銀行)예금통장을절취하야 인장을 위조하여가지고 권긔예금을찾든바 경성에가서 주색등에 소비한것을 비롯하야자긔가길은는 타인의소를팔아먹은일도 잇다하며 또는가을이되면 들에잇는벼뭇도 절취한일이잇다고(아산)

巡査輩夜半鼠行

남의내외자는방문열기와 지나가는녀자를유인하기

요사이인천(仁川)에서는 사복순사가 남의집내정을 돌입하야 내외자는방문을열고들여다보기와 지나가는 녀자를붓들고 강간하엿다는말이 한사람두사람의입을거쳐결국경찰서당국에까지알게되엇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됴사하건대 지난이십륙일오전세시경은되어서 당디상인천역 파출소에근무하는엄(嚴)순사는그부근룡강뎡(龍岡町)이십륙번디리성선(李聖善)의집에침입하야그 주인내외의 자는 것도불구하고그안방문을 열다가 마츰주인의잠이깨어도적놈이라고소리를질느며잔득떠살을쥐고 상인천 파출소로다리고가서본죽도적놈이아니라 권긔순사인데 엇더한리유로집흔밤중에남의집안방문을 열엇는지 일반은 의문을가지지안흘수업다하며 당디화평리(花平里)파출소에 근무하는량(梁)순사는 지난이십삼일밤 열한시경은되어 권긔화평리 구름다리(黑橋)염매가리공장압해서행순을하다가화도(花島)에사는뎐성녀(田姓女)의지나가는것을붓들고군도를떼어노코안지면서일본사람집에가서고공사리를하지말고 내가살림을시켜줄터이니 가티사는것이엇더하냐고그녀자를롱락하다가 그녀자가정색을하고항거하는바람에마츰부근청년들에게발각되어 복장순사가 행순하다가 복장안한채로 강간을하엿다고까지소문이낫섯다 더라(인천)

高麗工業巡講會 平壤서講演會

긔독청년회와본보후원 活寫도잇고盛況可期

조선사람의퇴폐된공업을진흥케하기와 그사상을고취하기위하야 재동경류학생으로조직된 고려공업회(高麗工業會)주최로순회강연대를조직하야가지고조선각디를순회한다함은본지에이미보도한바 어니와 평양에서는이십구일 하오팔시에 부내설암리(薛岩里)텬도교당(天道敎堂)에서 강연회를 평양 긔독교청년회와 본보평양지국후원 으로개최할터인바 당일 저녁에는 강연외에공업원리(原理)에관한 특이한활동사진도잇슬터임으로 일반에게 만흔흥미와 각성될것도만흐리라하며입장료는십전이더라(평양)

拳銃狂郵局員 配達夫를射傷

작난삼아권총을발사해 被害者는入院治療

지난이십칠일오후네시경에 함남단천군북두일면대신리(咸南端川郡北斗日面大新里) 우편국사무실에서 사무원이 배달부를 총상하얏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 사무원익뎐(益田)(一九)은 우편물 창고에서 권총을 쏘내가지고 권총을수선하다가 란환다섯개와 … 채워들고 배달부류동오(劉東五)에게 겨누면서발사코져하매무서워서이리저리로피하다가문을열고나가는것을쏘아목을마쳣다는데 이급보를 들은대신경찰관주재소에서공의와가티현장에 급행하야 진단한즉마침 생명에는아모관계가업다하나상처는매우중하야 즉시성진도립의원(城津道立醫院)으로 보내엇다 더라

運數不吉한農夫 작난하다가殺人

우연한작난으로사람죽여 草露가튼人間生命

경긔도진위군, 청면숙성리(振威郡城面宿城里)사는김소봉(金小奉)(二○)이란사람은작난하다가사람을죽이고상해치사(傷害致死)죄로검사국(檢事局)으로넘어갓다는바 이제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 권긔김소봉은 멧날전그동리 엇더한 사람의집논김을매고 점심을먹은후 잠시수이는중본저울 동군청북면토진리(同郡靑北面土津里)에두고품팔기위하야 권긔숙성리에 와잇는김순조(金順朝)(三○)가문지방을비고누어잇는것을 작난으로 그의다리를 잡어당겻던바 김순조는목이압흐다고 하더니 이튼날드대어 무참히죽고 말엇는데이는즉시가해자김소봉은인치하고서문을들은평택서(平澤署)에서 엄중한취됴를 계속하든바 지난이십삼일경성디방법원수원지청검사국(水原支廳檢事局)으로넘겻다 더라(평택)

強姦未遂

황해도송화군련방면방림리(松禾郡蓮芳面芳林里) 사음리정선(舍音李鼎善)은자긔의친족인협호(挾戶)를 만히다리고 사는바 지난 십오일에그의손자되는 리천수(李千秀)가역시자긔일가되는리인수(李仁秀)의처의방에들어가서 강간을하려다가 뜻을일우지못하엿는데 이사실을 들은 권긔리인수는 분함을참지 못하야리천수를 죽인다고 야단을하는통에 권긔사음의아들 리승복(李承馥)은싸홈을말린다고어름하다가 리천수의호미에 찍혀서 다리에중상을 당하고그밧게도부상을 한사람이 잇다는바지난오월칠일에는역시 그의일가인리여선(李汝善)의처가누구에게 모욕을당하고 창피하게생각하야 자살을한일이 잇다하며그집에서 는이런조치못한일이일어 난다하야일반의비난과의심을만히밧는다 더라

不義子壓殺

경남울산군상남면 천전리(慶南蔚山郡上南面川前里)정일록(鄭一祿)(三二)이란녀자는 그의남편이 일본(日本)으로가고 업게됨으로 불가티울어오르는 성욕(性慾)을 참지못하야 결국이웃에잇는박만조(朴萬祚)(四○)란자와 관계를매진후 달콤한정욕날마다밧든중 원수의 죄악의씨는 그의배속에들어 금년오월에옥동자를 나앗든바 여러사람압헤 보이기가 붓그러움으로 눌러죽이엇든것이 발각되어 부산디방법원(釜山地方法院)에서징역오년을바덧든바 악독한계집은 대구복심에 공소하엿섯는데 지난 이십칠일에 대구복심에서 검사(檢事)로부터 권판결과가티 징역오년을 구형하고 말엇다더라 (대구)

典執한洋傘을 退色도록使用

엉터리뎐당포

경북포항남빈뎡박성녀(慶北浦項南濱町朴姓女)는 수월전동본뎡(同本町) 강두천전당포(姜斗千典當舖)에 양산(洋傘)한개를 잡히고 돈일원을 취하엿든바 긔한을 압해두고 차즈려 갓더니뎐당포주인의말이양산을 누가잡시가저갓스니다시오라고 함으로 그다음날 다시가니 또그 모양이엇는데 이가티 여러날을 쏠다가 긔한이단하로만남게되는 날에가서는 류질(流質)될것을 념려하여 현금일원을 뎐당포주인에게주고 몃칠후에가서 양산을 차즈매 양산을 내어주기는하나 양산빗색이 전부날러가고몹시추하게되엇슴으로 권긔박성녀는 그무경우함에 분개하야여러사람에게 그이약이를하게되자 주인은 삼개월리자를 돌려주며 그의입을 막으려하엿스나 그는 종시경찰당국까지가서말하게되엇다는데 그는 권자에도 엇던사람의 혼수를 잡어서 이삼일되다가 긔한이지낫다 고류질시킨일이잇다더라(포항)

江東窃盜

평남강동군읍내(平南江東郡邑內) … 상뎜(商店)에는 작년일은봄에도 절도(窃盜)가 침입하야 각대한손해를 보왓는바 당시에이미본보에 게재된바어니와 지난이십륙일밤에 역시절도가동상뎜에침입하야 피해액이 현금기타물품약삼백여원에 달한다는바이상뎜은 경찰서가 지척임도불구하고 작년에 침입한범인도 잡지못하엿는데 또금번 이와가티 절도가 침입하엿슴으로 일반의아(疑訝)함을마지안는다고(강동)

僧房悲曲

(東亞映畫社撮影) 羅雲奎撮影監督 獨鵑作 [68]

팔고(八苦) (四)

생명이 위독하다 고권하든 총독부의원에 입원치료중인 필수의 경과는 엇지되엇는지? 한명진 피격투쇠레 한명진을 쏘기위하야발사한 자긔총의 탄환에마즌 그의왼편정강이(左脛)는뼈(脛骨)를관통한상처가 경과가불량하기때문에 무릅(膝)알에서 부터 … 어(截斷)버리지안코는 안되게되엇다 무릅을 잘라내는 수술을바든뒤로 한쌧피로한필수의몸은 다시 침벽에서 떨어질쌔에 부듸친원인으로 륵막(肋膜)에 염증(炎症)이생기어 생사의경(生死境)을배회하엿다 그러나 그의가진돈 그리고밤낫 곤대 의술(醫術)의은택으로 구구한생명만은보전하게되엇다 이제는 병옷(病衣)을 입은허수아비가티 말든불구(不具)의 몸을집행이에다 가의지하고간호부의보호미테 병실밧게서 산보도하기되엇다

그러나 수술한다리와 륵막염이 치료된뒤로 그는새병을한가지 어덧다 그것은 밤에잠을자지안코 무엇을생각하는것 이엇다 그것때문에 신경이과민하여지고 말아서 희로(喜怒)의 감정이 몹시빨라젓다

그는엇던날 간호부에게 면경을 좀빌려 달래서자긔의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수척한자긔의 몰골에 화가나서 손에들엇든 면경을벽에부드처서깨처버리엇다

그뒤로 필수에게 면경은절대로 보이지안키로되엇다

자긔를 보기실흔 사람에게 면경은금물이다

의사는 필수의신경과민을 걱정하엿다 이제무러는 중요히그방면으로 치료하기로하여 될수잇는대로밤에 잠을 잘재우도록하기위하여는 여러가지 약도쓰지마는 될수잇는대로 낫에와데의운동을 충분히 시키도록하여밤에 잠을잘자도록 하는것이중요한치료방법이엇다

이날도 필수는 집행이를끄드랑에다집고 간호부에게 보호되어 쌍쌍 병원뜰을 돌아다니고잇섯다

비가오거나 바람이불거나 하로도빠지지안코 맛날길업는 필수를맛나기위하야 병원을 드나드는 명숙은 이날도어린애를업고 병원으로 가서 필수를보게해달라고 애걸하엿다

『당신이 멧첫구려매일와도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이는가족이외에는 절대로 누구에게나면회를허락지안는 환자이니까 암만해도 면회는 되지못할것인데웨 공연히 애를쓰시요』

계원(係員)은핀잔을주엇다 명숙은 이핀잔을 들으러나왓는사람처럼 아모말도 안코돌아서 힘업는 발길을옴겨노앗다 이쌔에 안으로부터 간호부한사람이나왓다

『아이그 당신이또오셧구려지금 그이는저뒷들에서 산보를하시든데……』

이말을들은 명숙은 소리나는편으로향하야 그를불럿다

『여보서요 저좀 보세요지금그이가 산보하신다는데가 어테임니까』

『비… 저병원뒷들에서요』

『아이그 여보서요미안하지마는 저를그리로좀 다려다주서요네』

『큰일나게요 제마음대로그런일을하엿다가는』

『여보세요 제사정을보서서그러케해주서요 잠간만 맛나뵈옵구 곳나올터이니』

『글세요……』

간호부는 잡아거절 할수가업서 이러케대답하고 눈을깜박이며 무슨생각을하엿는지

『그럼제가 다려다드릴테니 잠간맛나보고 곳나오서야합니다』

『아이 참감사합니다』

간호부의손을붓잡은명숙의손은 깃붐에 떨엇다 압못보고내여도 는명숙의 발걸음은 부질업시밧밧다

아아그럽고 그리운이를 차자가는눈물겨운행복이여!